



샘엄마의 이야기

전 철 진

봄이면 온갖 꽃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기고 가을에는 갖가지 열매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는 무성한 숲이 있었습니다.

숲가운데 골짜기에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샘물이 퐁퐁 솟구쳐오르는 맑고맑은 샘터가 있어 이 숲을 샘골숲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른새벽 샘골숲을 거닐며 가만히 귀기울이면 도란도란 이야기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샘골숲에 단점을 주는 샘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샘골숲의 나무들아, 꽃들아, 풀잎들아, 잊지 말거라. 깊이깊이 새기거라, 너희들이 달디단 약샘물을 먹으며 푸른 숲을 이룬것이 누구의 덕인지를...》

이렇게 시작되는 샘엄마의 이야기는 샘골숲 키높은 나무들도, 어여쁜 꽃들도, 애어린 풀잎들과 새와 짐승들 그리고 자그마한 조약돌과 집채같은 바위들까지도 숨을 죽이고 듣곤 하였습니다.

...

숲변두리 양지바른 곳엔 샘골숲동네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샘골숲마을엔 억쇠라는 총각이 살고있었습니다.

억쇠는 늘 숲과 함께 살았습니다. 샘골숲을 끄적이 사랑하는 억쇠는 숲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늘 마음쓰는 억쇠를 볼 때마다 나무들은 너무 좋아 가지를 흔들며 반겨맞아주곤 했습니다.

억쇠의 정성이 하도 고마와 샘엄마는 어느

날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 억쇠아저씨가 우리를 그렇게 위해주고있는데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니?》

샘엄마의 말을 들으며 나무들이 우쭐우쭐 일떠섰습니다.

《웁아요, 웁아요.》

《우리도 보답을 하자요.》

그러자 가지마다 산열매들이 주렁주렁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온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샘골숲의 열매들은 정말 신기하고 귀한것들이었습니다. 한알만 먹어도 으쓱으쓱 새힘이 솟는 장수열매도 있었고 앓는 사람도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한다는 신기한 약열매도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으며 억쇠와 마을사람들은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빼앗지 못해 이를 부득부득 가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열두고개너머 검바위산에 둥지를 틀고사는 도적놈들이었습니다.

벌써 몇번째나 샘골숲마을을 타고앉자고 달려들었지만 매번 된벼락을 맞고 허탕을 친 두목놈은 골머리를 싸쥐었습니다. 도저히 억쇠와 마을사람들을 당해낼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놈들이 분명 샘골숲의 신기한 열매들을 먹고 장수가 된 모양이다. 어떻게 하면 마을놈들을 짓몽개버릴수 있을까?)

혼자서 끙끙거리던 두목놈은 아무래도 깊숙이 건사해둔 방망이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통 가시가 삐죽삐죽 내뿜친 그 방망이는 한번 휘두르기만 해도 시뻘건 불줄기가 뿜어져나와 모든것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 방망이는 꼭 세번밖에 쓸수 없는것이여서 두목놈이 지금껏 아껴온것이였습니다. (샘골숲을 타고앞으려면 이걸 쓰는 수밖에 없지.)

술한 줄개놈들을 내몰아 또다시 마을로 기여든 두목놈은 살기등등하여 샘골숲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푸른 잎새를 한들거리며 고운 꿈을 속삭이던 나무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온 숲이 몸부림쳤습니다.

《좋아좋아. 아하하하, 진작 이렇게 해야 하는걸.》

두목놈은 막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줄개놈들은 때를 만난것처럼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달려드는 도적놈들을 쳐물리치던 억쇠는 숲에서 타래쳐오르는 연기를 보고 한달음에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이놈들아! 숲은 절대로 불태우지 못한다.》

억쇠는 샘터로 달려내려갔습니다. 나무들이 목말라할세라 숲을 적셔주던 생명수였습니다. 언제나 마를줄 모르고 솟구치는 그 샘을 퍼올려 억쇠는 불타는 숲에 뿌려주고 또 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승을 부리며 타고오는 불길은 좀처럼 꺼질줄 몰랐습니다.

억쇠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억쇠의 얼굴에선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불붙는 나무들이 꼭 자기의 살점처럼 생각되어 잠시도 걸음을 늦출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퐁퐁 쉬임없이 솟구쳐오르던 샘이 갑자기 세차게 솟구치더니 분수처럼 뿜어져올랐습니다. 하늘공중으로 뿜어져올라간 그 물기둥은 불붙는 숲에 곧장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러자 악착스럽게 타번지던 불길이 맥없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영?》

눈이 벌췌 뒤집힌 두목놈은 두번째로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삼단같은 불길이 또다시 세차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샘구멍에서 끝없이 솟구쳐오르는 물기둥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샘엄마의 재간이였습니다.

땅속에서 샘물만 퍼올리던 샘엄마가 두목놈의 방망이에 맞서 무서운 물기둥을 뿜어올렸던것입니다.

악이 치밀어오른 두목놈은 무작정 억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억쇠는 서슬푸른 장검을 비껴들고 두목놈과 치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칼과 칼이 공중에서 맞부딪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열개, 스무개의 칼을 동시에 휘둘러 그 무엇이든 찌르고 베어낸다는 두목놈의 칼질도 억쇠의 용맹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였습니다.

《어디 두고보자!》

마을로 덮쳐든 줄개놈들을 모조리 요정내고 숨가빠 달려오는 마을사람들을 본 두목놈은 이렇게 씨벌이며 황황히 제 소굴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다행일세, 정말 다행이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일날번 했구만.》

억쇠는 불타버린 나무들을 아픈 마음으로 어루만지다가 마을사람들앞에서 말했습니다.

《두목놈은 쫓겨갔지만 우리 샘골숲을 빼앗자고 또 달려들수 있으니 모두들 각성을 더 높이자요.》

《그러자구.》

한편 검바위산으로 도망쳐온 두목놈은 부아통이 터져와 막 미쳐버릴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애비놈까지 게거품을 물고 막 고아했습니다.

《그래 방망이를 두번씩이나 쓰고도 부하들을 다 잃고 쫓겨온단 말이야?》

《그놈의 샘이 억쇠놈을 도와서 신기한 재주를 부리니 난들 어찌는 수가 있어요?》

두목놈은 이렇게 투덜거리며 이젠 다 틀렸다고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보같이 김새는 소리만 하느냐? 그놈의 샘을 콧 막아버려라. 그래야 억쇠란 놈

도 움쩍 못하지.)

에비놈이 거품을 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샘을 어떻게 막는다고 그래요? 불지르는 방망이로 샘물을 막을수 있어요?》

《자식, 그건 그냥 불방망이가 아니라 요 술방망이야. 그걸루 샘구멍을 짹 틀어막구 똑똑 두드려라. 그럼 알도리가 있을걸. 호호...》

에비놈의 수작질에 두목놈도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하하, 그렇게만 되면 샘골숲을 재가루로 만드는데 땅짚고 해염치가지.》

두목놈은 달도 별도 없는 야밤에 살그머니 샘골숲에 기여들었습니다.

《이놈들, 어디 죽어봐라.》

두목놈은 이렇게 씨벌여대며 맑은 물이 뽕뽕 솟아나는 샘구멍에 방망이를 콕 틀어박고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방망이가 바위돌로 굳어져 점점 커지더니 샘구멍이 콕 막혀 물이 한방울도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됐구나, 됐어.》

저 혼자 좋아서 엉덩춤을 추어대던 두목놈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목놈은 숲속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가물철이라 바짝 마른 가랑잎 무지속에 감추어가지고있던 불씨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후후— 입바람을 몇번 불어넣으니 불씨들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히히, 이젠 용빼는 수가 없지. 어디 한번 재가루가 돼봐라.》

두목놈은 뿌직뿌직 소리를 내며 큰 나무들로 점점 번져가는 불길을 보면서 제 소굴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밤늦도록 불탄 숲에 나무를 심다가 곤히 잠들었던 샘골숲마을사람들은 두목놈이 지른 불길이 우우— 소리를 지르며 타오를무렵에야 불이 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골숲에 불이 났어요.》

《모두 물초롱을 들고 나오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웨침에 적삼을 꺼입으며, 신발을 껴신으며 이집저집에서 마을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커다란 물초롱을 찾아들고 뛰어나온 역쇠는 샘골숲에서 세차게 솟구치는 불연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이 또 숲을 불태우느냐?...》

역쇠와 마을사람들은 정신없이 산으로 달려올라갔습니다.

《빨리 물을 길어옵시다.》 하고 소리치며 샘터로 달려간 역쇠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난데없는 방망이모양의 바위돌이 샘구멍을 틀어막고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모두들 달려붙어 바위를 뿔아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타 쓰러지는 나무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것만 같았습니다.

《물, 물이 있어야 할텐데...》

역쇠와 마을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와 손에 피가 나도록 바위밑을 파헤쳤지만 어떻게나 콕 막혔는지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는 그러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숲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에 역쇠와 마을사람들은 무섭게 타는 불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숨이 꺾꺾 막히고 입고있던 옷들도 불에 그슬려 너털너털해졌습니다. 역쇠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겨우 불은 꺾지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타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어이쿠, 이 일을 어쩌면 좋소?》

마을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습니다.

역쇠의 가슴도 막 찢기는것처럼 아파났습니다. 얼마나 품들여 가꾸어온 숲이었습니까.

하지만 맥을 놓고 주저앉을수는 없었습니다. 검바위산놈들이 보란듯이 일떠서야 했습니다. 놈들이 불태운것보다 열곱 스무곱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고향마을의 재부인 숲을 더 무성하고 푸르게 하여야 했습니다.

(우선 샘구멍부터 열어야 한다.)

역쇠는 큰 함마를 가지고가서 샘구멍을 막은 바위돌을 냅다 갈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숨에 깨어져나갈줄 알았던 바위돌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움썩거리며 커졌던것입니다.

그제서야 역쇠는 샘구멍을 막은 바위가

심상치 않은 돌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은 점점 더 메말라졌습니다. 불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나무들도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심었던 예기나무모들도 작은 잎새를 맥없이 축 내리드리렀다가는 끝내 시들어버렸습니다.

물, 물... 어디서나 안타깝게 생명수를 찾았습니다.

샘구멍을 막은 바위돌을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쏘아보던 역쇠는 다시한번 마음먹고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진 애를 써도 바위는 좀처럼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역쇠는 너무도 억이 막혀 샘바닥에 어푸러져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아, 이 괴물같은 바위돌을 없앨 힘이 없단 말인가...》

역쇠가 굵은 눈물방울을 푹푹 떨구고있는데 땅속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보물망치를... 무지개...》

도간도간 끊어지며 가늘게 울려나오는 소리여서 도무지 가늠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역쇠가 바짝 귀를 강구했으나 더이상 아무런 소리도 울려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보물망치라니? 무지개는 또 뭘까?)

역쇠는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는 사시장철 맑은 샘물을 퍼올리는 샘엄마가 샘구멍을 틀어막은 방망이때문에 땅속에 갇혀 신음하고있는줄 미처 몰랐던것입니다.

샘터에 앉아 까닭모를 말마디들을 곱씹어보던 역쇠는 어렸을적 옛말로 들어오던 무지개동굴 보물망치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제아무리 크고 굳은 바위라도 단번에 깨버리는 보물망치, 한번 내리치면 큰 산도 쪼갤라진다니 그것만 있으면 이 괴물바위도 깨버릴수 있지 않을까.

역쇠는 그길로 무지개동굴이 있다는 벼랑산으로 향했습니다.

벼랑산은 날새도 깃들이기 저어하는 험한 곳이어서 사람들은 그곳에 오를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벼랑산 무지개동굴에 있다는 신기한 보물망치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옛말이든 전설이든 역쇠는 가만 앉아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이 벼랑산에 올라가 보물망치를 찾아내어 샘구멍을 틀어막은 저주로운 바위돌을 까부셔야 했습니다.

가파로운 날벼랑을 오르다가 떨어지기를 그 몇번, 두손과 팔굽, 무릎 할것없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역쇠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물망치를... 무지개...》 하던 샘터의 가느다란 속삭임소리가 빨리 보물망치를 찾아다 샘구멍을 열어달라는 절절한 호소같이 주저앉을수가 없었습니다.

역쇠는 모진 고생끝에 벼랑산중턱에 올랐습니다.

《야, 무지개동굴!》

역쇠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한번도 와본적이 없었지만 무지개모양의 굴아구리를 보고 무지개동굴이라는것을 제격 알수 있었던것입니다.

역쇠는 손더듬을 해가며 동굴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걸어가니 캄캄하던 굴안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굴바닥에서 비쳐나오는 빛이였습니다.

(굴바닥에 뭐가 있는게 아닐까?)



역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며 조심스레 굴바닥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흰 안개가 피어나오더니 번쩍번쩍 빛을 뿌리는 자그마한 함이 나졌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리고있던 역쇠는 한참만에야 함뚜껑을 열어제쳤습니다. 순간 그안에서 눈을 뜰수 없게 센 빛이 뿜어져나왔습니다.

역쇠가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함안에는 자그마한 망치가 놓여있었습니다.

《찾았다!》

환성을 울리며 망치를 안아들던 역쇠는 그밑에 놓여있는 종이에 눈길이 미쳤습니다.

(이게 뭘가?)

세겹으로 접은 참지를 펼쳐보던 역쇠는 그만 보물망치를 푹 땄구고말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사람만이 이 보물망치를 쓸지어다.》

종이에 쓰여있는 글을 보는 역쇠는 숨이 꺾 막히는것만 같았습니다. 설사 이 망치로 피물바위를 깨고 샘구멍을 연다고 해도 난 죽고말겠구나 하는 생각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순간 역쇠의 눈앞에 불타버린 샘골숲이 떠올랐습니다.

향기롭고 맛있는 장수열매를 주던 아름다운 숲, 이제는 거뭇게 빛을 잃어 그전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된 샘골숲...

(내 고향숲에 젊음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역쇠는 굳은 각오를 품고 보물망치를 틀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름다와질 고향산천의 래일을 그려보며 산을 내렸습니 다.

샘터에 이른 역쇠는 땀고미운 피물바위를 쏘아보며 보물망치를 짝 그러쥐었습니다.

(내 기여이...)

역쇠는 숲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웨쳤 습니다.

《아, 고향산천아, 나를 잊지 말아다오.》

역쇠는 온몸의 힘을 보물망치에 모아 피물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짜르릉-》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피물바위가

짝 갈라지며 샘물이 콧 솟구쳐올랐습니 다. 피물바위때문에 땅속에 갇혀있던 샘물이 소용돌이를 치며 내물을 지어 흘러갔습니 다.

어느덧 불타서 거뭇게 죽었던 나무들에 파릇파릇 새움이 트고 새로 심은 애기나무 들은 우줄우줄 키를 솟구었습니다. 보금자 리를 옮겼던 새와 짐승들도 물소리, 물냄새 에 저마끔 몰려와 맛스럽게 물을 들이켰습 니다.

온 숲이 소생의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피물바위를 까버리고 쓰러진 역쇠 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야 달려온 마을사람들은 역쇠의 손 에 들린 보물망치를 보고 모든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역쇠야-》

마을사람들의 절통한 웨침이 온 숲에 차 넘쳤습니다. 숲속의 나무들과 꽃들, 새와 짐승들도 역쇠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결연히 일어나 역쇠 가 바라던대로 숲을 가꾸었습니다.

샘엄마도 한몫 바쳐 샘구멍을 열어놓은 역쇠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으려고 맑은 샘물을 더 많이 솟구쳐올렸습니다.

샘골숲은 샘엄마의 달디단 샘물을 젖줄기 로 하여 이전보다 더 멋진 숲으로 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도 숲에서 나는 장수열매, 약 열매들을 먹고 다시금 장수힘을 되찾았습니 다. 하나같이 장수가 된 마을사람들은 검바 위산놈들을 들이쳐 두목놈과 그 패당을 모 조리 죽치고 역쇠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후 마을사람들은 역쇠의 뉘까지 합 쳐 샘골숲을 정성다해 가꾸고 또 가꾸었습니다.

...

매일과 같이 들어 외우다싶이 한 이야기 지만 들을수록 마음이 몽클해지는 이야기여 서 샘엄마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누구 하나 바스락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고향산천을 위 해 한몫 다 바친 역쇠를 잊지 않고 샘골숲 을 영원히 푸르러 설레이는 보배숲이 되게 할 굳은 결의가 차고넘쳤습니다.

(송도사범대학 로동자)